2021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2021년 8월 15일(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 NCCKTV 녹화방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주 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목 적

1.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하여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함
2.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실천을 통하여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함
3.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
4. 한반도 평화통일 및 지구촌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

배 경

1. 광복절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2.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15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세계교회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예배문을 사용해주기를 소망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위한 예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4.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5.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발표하여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제시하였으나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분단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NCCK는 이 두 선언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하였고,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교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 친지, 주변의 공동체와 함께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인도자: 최수산나 부장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서기, 한국YWCA연합회)

(일어섭니다)

예배로의 초대 ····· **인도자**

인도자: 창조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온 세계의 경계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 돌봄 안에 두셨습니다.

회 중: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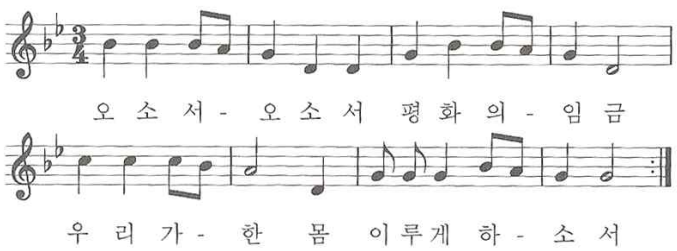
인도자: 성령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불을 붙이시어 우리를 믿음, 정의, 화해를 위한 열정으로 채우십니다.

회 중: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

인도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사형을 선고하며 진리를 억누르려 했던 세상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제자도의 대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였고 주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회 중: **주님, 우리가 당신의 진리와 평화의 빛을 비추도록 도우소서.**

개회찬송 ····· **오소서 오소서** ····· **다함께**



1. 평화의 2. 정의의 3. 생명의

기 원 ····· **인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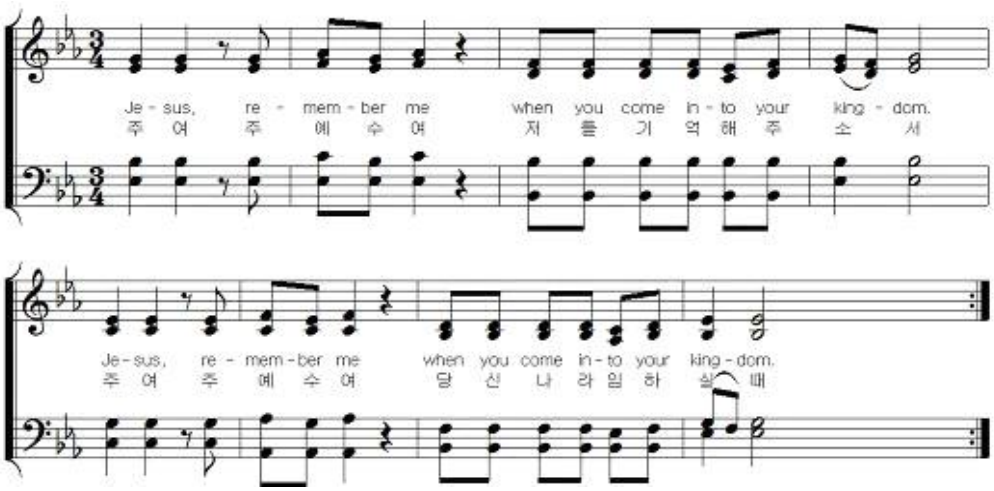
인도자: 하나님, 이제 우리 한민족이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걷고자 합니다. 남북교회에 힘을 주셔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정신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땅, 평화로 하나가 된 땅,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회 중: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앉습니다)

죄의 고백 ····· **송병구 목사**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당신의 길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우상처럼 여겨 주님이 주신 화해의 명령보다 중시합니다. 이웃의 상처를 무시하며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만을 돌보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음을 걷지만, 금세 지치고 힘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길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채워 주시고, 당신의 자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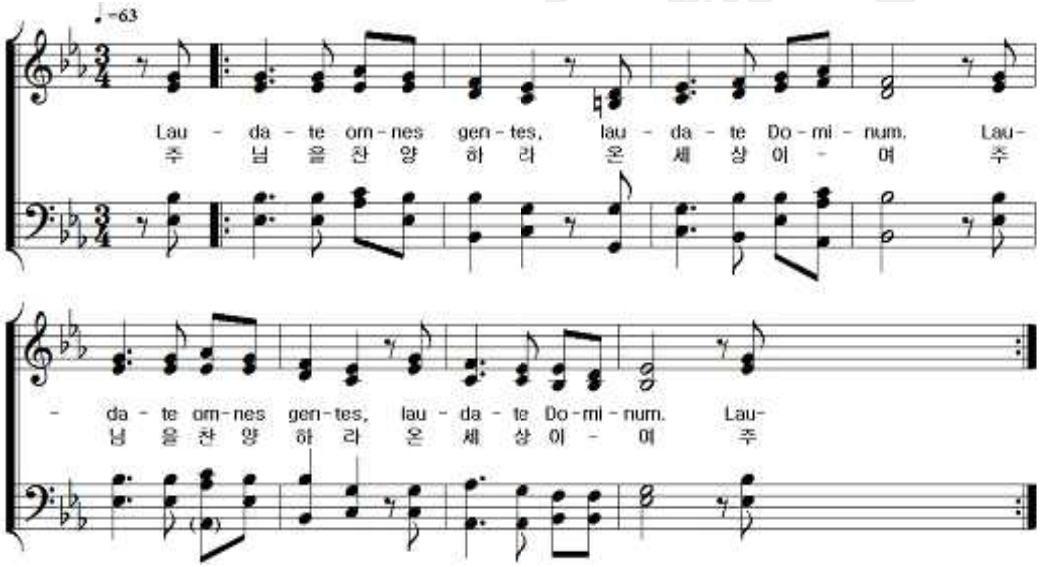
응답송 ····· **주여, 주 예수여** ····· **다함께**



용서의 선언 ····· **인도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찬 송 ····· **주님을 찬양하라** ····· **다함께**



말 씀

오늘의 기도 ····· **정병주 목사**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성경봉독 ····· **임종훈 신부**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시편 34편 14절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공동번역)

설 교 ····· **조성암 대주교**
(한국정교회)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

감사와 응답

2021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 **하성웅 목사**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정인숙 장로
(기장 여신도회전국연합회 사회위원회 위원장)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남과 북의 민民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온 터전,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왔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民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안보의 이름으로 행하는 군사훈련을 멈추므로,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북과 남/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북과 남/남과 북의 하나 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북남/남북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북과 남/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교회협이 조그련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감

(일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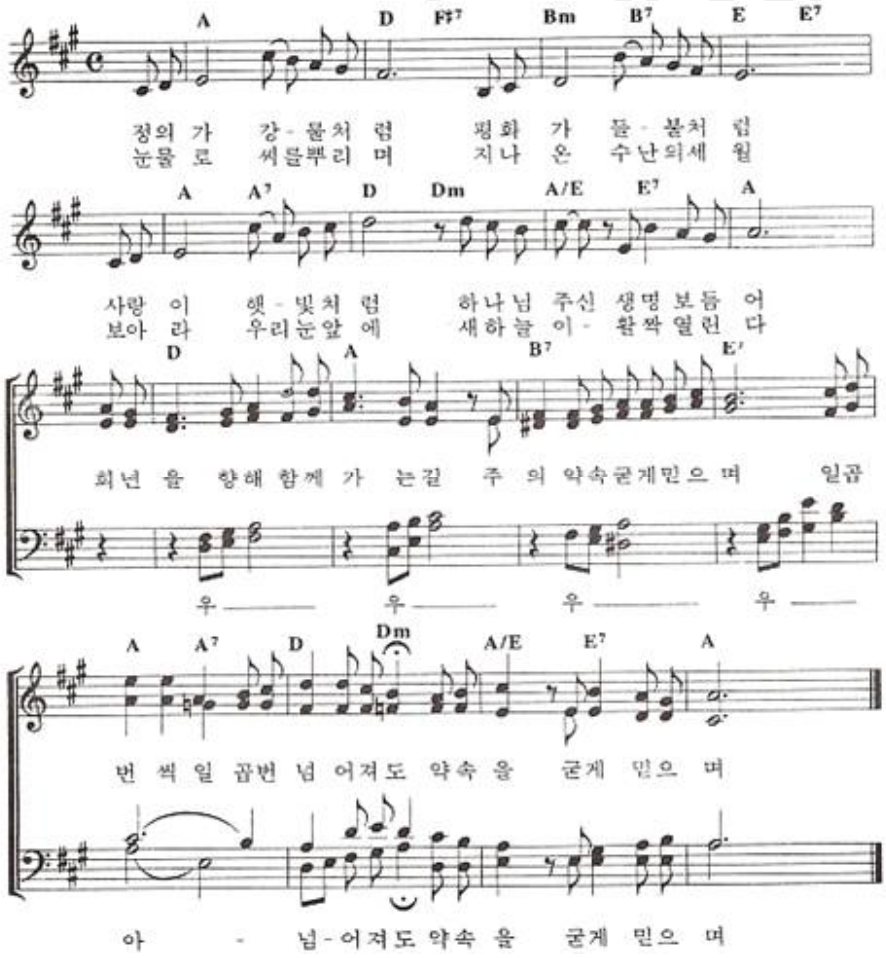
파송사 ..... **이홍정 목사 (교회협 총무)**

맡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이 평화를 숨긴 채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가깝고 먼 모든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 평화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폭력의 모든 음모보다 더 강력합니다. 평화는 위험한 우상 숭배에 도전합니다. 평화는 갈등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연대하게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채워져 차고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회 중: **또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 께: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 옆의 자매와 형제와 함께 그 평화를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찬 송 ·····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 **다함께**



축 도 ····· **이경호 주교**
(교회협 회장, 대한성공회)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 이용하여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rvHDv4fRLqyKCmCk7

첨부)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단장, 기관장 명의의 목회서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던 지난 해, 본회는 전 세계의 종교, 시민사회 공동체들과 함께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을 목표로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반도종전평화” (Korea Peace Appeal)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족상잔의 3년 전쟁을 통해 우리 모두는 무력으로는 통일도 평화도 이루지 못한다는 귀중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핵무기와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8년 9.19 군사합의가 무색하게 남북 모두 군사비 지출을 경쟁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할 위기가 상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한반도를 둘러 싼 오랜 군사적 적대관계와 군비경쟁을 지금 당장 끝내지 않는다면, 이 땅에 또 다시 전쟁의 악몽이 재현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은 전 세계교회와 이웃종교, 그리고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적대와 불신을 걷어 내고 상호신뢰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의 표시입니다.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모아 각 국 정부와 유엔을 움직여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헌신의 각오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내년 8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 때까지 “세계 100만 기독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친지, 교인과 이웃들을 설득하셔서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며,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매우 어렵고 의기소침한 상태이지만, 평화를 위한 일을 위해서는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편 14절)

2021년 7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경호
총무 이홍정

회원교회 교단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정호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건희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장미선 총회장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강희욱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회원연합기관 대표
기독교방송(CBS) 김학중 이사장
대한기독교서회(CLS) 서진한 사장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채수일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 송인동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